

[화제의 인물]

심폐소생술로 근로자 생명을 구한 보건관리자



이 경 하 / 삼성토탈 보건관리자

2008년 11월 17일 오후 3시 5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삼성토탈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던 이경하 산업간호사는 냉온수기 소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심근경색증에 의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실신하자 신속하고 차분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구급차 안에서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결과 귀중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하 보건관리자는 생명을 구한 공로뿐만 아니라 평소 산업간호사로서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사내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이경하 보건관리자는 주변의 축하와 격려에도 “산업간호사로서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하였다.

심근경색증은 협심증과 함께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뇌혈관질환과 함께 발병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40% 정도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며, 경색 후 첫 2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므로 초기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의학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이다. 특히 근로자의 심혈관질환은 흡연, 음주, 비만, 운동부족 등 나쁜 건강행동과 직무스트레스, 장시간노동, 교대근무 등의 직업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그 위험성이 더 높아 인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보건관리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경하 보건관리자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은 산업간호사로서의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삼성토탈은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이제는 세계의 최고 화학기업으로 도약하는 사업장이다. 이경하 보건관리자는 임상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지역사회에 한발자욱 더 다가가기 위한 마음으로 삼성토탈 보건관리자로 입사하여 14년간 몸담고 있는 중견보건관리자이다. 종합화학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서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와 근로자에 대한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므로써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대근로자에 대한 생활습관과 신체 피로 등의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이경하 보건관리자는 풍기는 이미지만큼 똑 부러지고 믿음직한 왕언니요, 따뜻한 수호천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三思一言 三思一行(한마디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고, 한번 행동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라)’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산업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경하 보건관리자는 14년의 관록 있는 산업간호사 경력에도 산업보건은 근무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말한다. 산업간호는 폭넓은 임상에 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산업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상담가로서 역할뿐 아니라 사업장의 보건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진료에서 작업에 복귀하기 까지 보건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 종종 예기치 않았던 응급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보건관리자는 여러 가지로 응급처치에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노련한 응급처치 기술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경하 산업간호사는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그 어려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추었다. 신속한 응급처치 활동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게 하여 배치시키는 등 사업장내 체계적인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눌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명에 따라 지역사회 병의원, 학교 등에서 응급처치 교육활동을 펼치며 산업간호사로서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경하 보건관리자는 시종일관 “산업간호사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하다보면 알아주는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양지가 빛이 나는 것은 음지가 있기 때문이고, 양지가 더욱더 빛나는 것은 음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산업간호사들에게 호소한다.

사업장 보건관리자로서 소망을 물으니 지난 봄 이후 지금까지 신종인플루엔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 가정의 사랑스런 아내와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개인적인 소망을 물으니 영어를 잘하여 외국합작회사의 보건관리자로서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여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한다.

‘매사 하는 일에 꿈과 혼이 있어야 하며, 꿈은 비전이고 혼은 실행정신 곧 가치관’이라는 대표이사의 신념과 ‘열정과 도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회사의 이념을 가슴에 새기며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을 갖추는 보건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다짐하는 이경하 보건관리자에게 오랫동안 힘찬 박수를 보낸다.

